

국어교육연구 제58집
국어교육학회(2015. 6.)

국어교육의 북한어 이해 교육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정선*

< 차례 >

- I. 서론
- II 2011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의 북한어 이해 교육
- III. 북한어 이해 교육에 대한 비판적 검토
- IV. 제안 및 결론

I. 서론

통일에 대한 논의는 분단 이후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의 중요 화두로 자리 잡아 왔다. 냉전시기의 종식을 맞이하며 남한과 북한은 서서히 교류를 시작하여, 남한의 통일 교육도 ‘반공 교육’의 또 다른 이름에서 벗어나 북한 이해를 위한 교육내용이 교육과정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통일 시대를 위한 어문 교육은 통일 한국 체제를 가장 앞당기는 수단임과 동시에 그 체제를 더욱 공고히 다지는 최후의 수단이다(김중신 2014: 94). 국어교육에서도 통일을 대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며

*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수

최근에는 현 실태를 분석하고 미래 모습을 예측하여 ‘통일 한국’, ‘통일 시대’의 국어교육을 준비하고자 국어교육의 성격, 방향 등 정책적 관점의 논의가 활발히 시도되고 있다(이인제 2005, 홍종선 2009, 김중신 2014). 이러한 논의들은 남한어와 북한어의 차이, 어문정책의 차이, 남한과 북한의 국어교육의 목표를 분석하여 이들에 나타난 이질성을 극복하는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¹⁾

남한의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북한어를 다루기 시작한 것은 제5차 교육과정부터이지만, 국어과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북한어 이해 교육은 그다지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²⁾ 북한어 이해 교육의 목표, 북한어 이해 교육의 내용 등 현재 남한에서 북한어를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 또한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1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북한어 이해 교육의 현황을 검토하여 통일을 대비한 국어교육의 구체적 실천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³⁾

II. 2011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의 북한어 교육

2011년 개정 교육과정의 국어과에서 북한어에 대한 내용은 공통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1-3학년군 <국어>에서, 선택 과목에서는 <국어Ⅱ>와 <독서와 문법>에서 다루고 있다.

1) 이인제(1996), 서혁(1997), 최현섭(1999) 등 참조.

2) 이에 대해서는 ‘Ⅲ장 1. 북한어 이해 교육의 목표’에서 다루기로 한다.

3) 분석 교과서는 중학교 <국어> 14종, 고등학교 <국어Ⅱ> 8종,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6종이다.

〈표 1〉 2011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북한어 이해 관련 성취 기준과 해설

학년군	내용 성취 기준	내용 성취 기준에 대한 해설
중1-3 [문법]	(3) 어문 규범의 기본 원리와 내용을 이해한다.	(전략) 남북의 한글 맞춤법에서 차이점을 간략히 알아보고 남북한 언어 동질성 회복 방안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한다.
국어Ⅱ [문법]	(11) 국어의 변천을 이해하고 국어의 발전 방향을 탐구한다.	(전략) 국어의 미래와 관련하여 남북한의 언어 동질화 문제를 다루고 국어의 위상과 발전 방향을 탐구하여 본다.
독서와 문법 [국어 자료의 탐구]	(28) 남북한 언어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동질성을 회복하는 방안을 탐구한다.	남북 분단의 시대에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 언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남북한 언어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각각의 특성을 인정하면서도 민족 통일에서 언어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제 국어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구체적으로는 남북한 언어가 표기법, 어휘, 문장, 담화 차원에서 차이 나는 것을 탐구하면서 남북한 언어의 동질성 회복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한다.

〈표 1〉을 보면, 독립적인 성취 기준으로 북한어를 다루고 있는 과목은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뿐이고, 중학교 〈국어〉와 고등학교 〈국어Ⅱ〉에서는 각각 어문규범과 국어 변천의 일부분으로 다루고 있다. 이는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 8학년에 북한어 관련 성취 기준을 독립적으로 배치했던 것에 비해 축소된 것이다.⁴⁾⁵⁾

4) 김혜정(2013: 156-157)에서도 교육과정에서 북한어의 이해 관련 성취 기준의 변화로 인한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5) 2007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북한어 이해 관련 성취 기준과 해설은 다음과 같다.

북한어에 대한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 교과서에 구현된 방식에는 교과서 개발자의 국어교육관, 교재관, 학습관, 학생관 등이 반영되어 교육과정을 재해석하기 때문에 교과서마다 단원 구성, 학습 내용 등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먼저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북한어에 대한 내용을 단원 구성 체제에서 어떤 형태로 배치하였는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⁶⁾

교육과정 소개	내용 성취 기준	내용 성취 기준에 대한 해설
8학년 [문법]	(1)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를 비교한다.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를 비교하여 이해하기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의 원인과 실태 파악하기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를 극복하는 방안 찾기
고등학교 [문법]	(나) 국어의 미래 ① 통일시대의 국어 ② 남북한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동질성 회복 방안을 탐구한다.	이 내용은 분단 상황에서 남북한 언어가 음운, 단어, 문장, 담화의 측면에서 어떤 변화와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본다. (중략) 이 내용은 ‘국어’ 8학년 문법 영역의 성취 기준 ‘(1)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를 비교한다.’를 심화한 것으로 이와 연계하여 지도하고,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조사하여 탐구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질성보다는 동질성을 강조하여 지도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남북 언어의 자연스러운 통일방안을 탐구하도록 지도한다.

- 6) 제시 유형은 교과서 구성이 교과서마다 상이하여 논의 전개를 위해 편의상 ‘제재, 학습활동, 단원의 마무리’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제재’와 ‘학습활동’은 소단원 단위에서 제시된 내용을, ‘단원의 마무리’는 대단원 단위에서 제시된 내용을 포함하였다. 문법 영역의 특성상 개념 확인을 위한 ‘이해 활동’으로 구성된 것도 ‘활동’ 위주이기 때문에 ‘학습활동’으로 분류하였다. 단원의 마무리에서는 내용을 요약한 것은 제외하고 ‘확장 학습, 심화 읽기’ 등을 포함하였다.

〈표 2〉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북한어 관련 내용의 단위 구성 배치

번호	구분 ⁷⁾	단위명	제시 유형		
			제재	학습 활동	단위의 마무리
1	A-4	2. 우리말의 신호등 (1) 국어 생활의 약속	○	○	
2	B-3	3. 바른 말, 바른 글 (1) 최소한의 약속 (2) 발음, 바름!			○
3	C-4	3. 우리말의 올바른 사용 (2)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	○	
4	D-4	5. 바른 말, 바른 글쓰기 (1) 교양 있는 언어생활		○	
5	E-4	4. 언어의 규범 (1)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2)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 (3) 남북한의 언어	○	○	○
6	F-4	3. 국어와 함께라면 좋아 (1) 우리말 규범 이야기		○	
7	G-3	5. 알고 쓰는 말과 글 (1) 표준어 규정과 한글 맞춤법 (2)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3) 보고하는 글쓰기			○
8	H-3	3. 정확한 발음과 올바른 표기 (1) 음운의 변동과 표준 발음 (2)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3)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	○
9	I-4	3. 올바른 국어 생활 (2) 어문 규범		○	

7) 'X-0'에서 알파벳은 출판사를 대신한 것이고, 0은 '권'에 대한 정보이다.

10	J-5 ⁸⁾	3. 상황에 맞는 말 (2) 말과 글이 놓이는 자리		○	
11	K-3	3. 음운 변동과 어문규범 (1) 음운의 변동 (2) 어문 규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	○
12	L-4	5. 올바른 언어생활 (1) 어문 규범의 이해와 활용 (2)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발표하기	○	○	○
13	M-4	다양한 생각과 정확한 말 (2) 국어의 어문 규범	○	○	
14	N-4	2. 바른 말, 다채로운 말 (1) 올바른 언어생활	○		

총 13개 출판사의 14개 교과서에서 북한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북한어’에 대한 내용을 제재와 학습활동에서 함께 다루고 있는 교과서는 7종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7종에서는 제재로만 제시한 교과서가 1종, 학습 활동에 제시한 교과서가 4종, 단원의 마무리에 제시한 교과서가 2종이다. 북한어 관련 내용에 대한 이와 같은 교과서 단원 배치는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따라 남한의 ‘어문 규범’에 대한 원리와 내용을 중심 내용으로 파악하고, 남한과 북한의 한글맞춤법에서의 차이, 남북한 언어 동질성 회복 방안 등은 부차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판단은 소단원명에 북한어가 포함된 교과서가 1종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등학교 <국어Ⅱ>의 북한어 이해 내용에 대한 단원 구성 체제에서의 배치도 중학교 <국어>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8) J-5는 어문규범이 아닌 사회문화적 맥락의 관점에서 북한어를 다루고 있다.

〈표 3〉 고등학교 〈국어Ⅱ〉의 북한어 관련 내용의 단원 구성 배치

번호	구분	단원명	제시 유형		
			제재	학습 활동	단원의 마무리
1	A	3. 우리말과 글의 어제와 오늘 (1) 우리말이 걸어온 길		○	
2	B	4. 국어가 걸어온 길. 나아갈 길 (1) 국어의 변천과 미래	○	○	
3	C	3. 우리말 우리글 (1) 국어의 변천	○	○	
4	D	2. 우리말이 걸어온 길 (3) 하나 된 언어, 하나 된 민족	○	○	
5	E	3. 우리말과 글이 빛나려면 (1) 우리말의 역사		○	
6	F	3. 국어의 발자취를 따라서 (1) 국어가 걸어온 길 (2) 한글의 제자 원리			○
7	G	2. 우리말과 글이 걸어온 길 (2) 국어의 역사	○	○	
8	H	4. 우리말이 걸어온 길 (1) 한글의 제자 원리와 특성 (2) 우리말의 변천		○	○
9	I	2. 걸어온 길, 나아갈 길 (1) 국어의 역사와 미래	○	○	
10	J	3. 우리말과 우리글 (2) 국어의 변천과 발전		○	
11	K	4. 우리말이 걸어온 길 (1) 우리말의 어제와 오늘	○	○	

고등학교 〈국어Ⅱ〉에서는 북한어 이해 내용을 제재와 학습활동에 함께 배치한 교과서가 전체 11종 가운데 6종이고 나머지 5종은 학습활동과 단원의 마무리에서 다루고 있어 중학교 〈국어〉와 비슷한 수준이다. 국어의 변천을 이해하고 미래 국어의 모습을 한국어의 세계화, 국어 정보화와 더불어 통일 이후 겪게 될 남북한 언어 문제로 범주화하여 설

명하고 있다. 단원명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 주로 우리말의 ‘역사, 변천, 미래, 발전’ 등을 드러내고 있으며, 유일하게 ‘하나 된 언어, 하나 된 민족’만이 남북한 언어를 제재로 하며 단원명에서도 이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제재로 북한어 이해 내용이 다루어질 경우에도 북한어에 대한 내용은 국어의 미래 중 한두 단락을 차지하는 정도로 그쳐 역시 그 중요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학교 <국어>와 고등학교 <국어Ⅱ>에 비해 문법의 심화 과목인 <독서와 문법>에서는 북한어 이해와 관련한 내용이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포함되어 있다.

<표 4>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의 북한어 관련 내용의 단원 구성 배치

번호	구분	단원명	제시 유형		
			제재	학습활동	단원의 마무리
1	A	2. 국어자료의 탐구 (1) 국어 자료와 국어의 변천 양상 (2) 한글만 쓰는 누리 (3) 남북한의 언어 (4) 한국어의 오늘과 내일	○	○	○
2	B	3. 국어의 위상과 발전 (2) 통일 시대의 국어	○	○	
3	C	2. 언어 공동체와 독서 (1) 통일 시대의 우리말	○	○	
4	D	5. 국어의 역사 (2) 통일 시대의 국어	○	○	
5	E	2. 국어 자료의 탐구 (1) 국어가 걸어온 길 (2) 국어의 수난과 발전 (3) 남북한의 언어 (4) 세계 속의 한국어	○	○	○
6	F	2. 국어 자료의 탐구 (2) 국어의 미래	○	○	

〈표 4〉에서 보듯이 총 6종의 교과서 모두 북한어 내용을 제재로 담고 있으며, 소단원명에서도 ‘남북한, 통일’ 등을 명시하여 북한어 이해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상의 2011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 단원 구성 체계를 검토한 결과, 국어과에서 북한어 이해 관련 내용은, 중학교 때 비로소 학습하기 시작하여 고등학교 시기에는 선택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어 국어교육 내에서 그다지 중요한 내용으로 인식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⁹⁾ 이러한 인식은 공통 교육과정에서 북한어 이해를 목표로 하는 단원의 부재, 한 두 개의 학습활동으로 북한어 이해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교과서 등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다.

Ⅲ. 북한어 이해 교육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북한어 이해 교육의 목표

남한의 국어과에서는 제5차부터 국어 교과서가 아닌 문법 교과서에서 북한어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그 양과 내용이 미약하였고, 제6차

9) 북한어 이해 교육에 대한 인식은 최근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갖게 된 ‘청소년의 바른 언어생활’과 관련한 교육 내용의 배치와 비교해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바른 언어생활’에 대한 성취 기준은 초등학교 1-2학년군 ‘(8) 고운말 바른말을 사용하는 태도를 지닌다’, 초등학교 5-6학년군 ‘(9) 비속어 사용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품위 있는 언어생활을 한다’, 중학교 1-3학년군 ‘(10) 화법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서로 다른 집단 간의 소통의 중요성을 안다.(해설 중 ‘아울러 일상 화법에서부터 차별적 표현이나 비속어 표현을 삼가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을 알고 실천하도록 지도한다)’, 국어 I(화법) ‘(3) 부정적 언어 표현의 폐해를 인식하고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를 형성하는 태도를 기른다.’와 같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공통교육 과정에 촘촘히 배치되어 있다.

교육과정에서부터 비로소 북한어를 국어과에서 다루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제7차 교육과정에 와서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북한어와 관련하는 단원이나 내용이 다 빠져, 통일 교육면에서는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을 보인다(홍중선 2009: 43). 이후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 다시 독립된 성취 기준으로 제시되었던 것이 2011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또다시 ‘어문규정이나 국어의 변천’을 학습하는 중에 부분적으로 다루어질 정도로 축소되고 만다(김혜정 2013: 156).

이처럼 교육과정에서 북한어에 대한 교육이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별로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북한어 교육에 대한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북한어 교육 목표에 대해서는 강보선(2004: 17)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 (1) 북한어 이해 교육의 목표는 북한어의 언어적 특성에 대한 이해, 언어 문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 남북한 언어 차이 극복을 위한 태도 형성 까지 아우르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1)의 목표는 언어에만 초점을 둔 것으로 언어(문법) 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인지적, 정의적, 실천적’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아래의 ‘국어과’ 교육목표와 ‘독서와 문법’ 교육목표에서 바와 같이 북한어 이해 교육의 목표도 문법 지식을 형성하는 인지적 영역, 가치, 태도를 형성하는 정의적 영역, 언어 행동에서 나아가 언어문화까지 형성하는 행동적 영역에서의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 (2) 2011개정 ‘국어과’ 교육목표
 가. 국어 활동과 국어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힌다.
 나. 다양한 유형의 담화와 글을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생산한다.
 다. 국어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어 생활을 능동적으로 하는

태도를 기른다.

(3) 2011개정 '독서와 문법'의 교육목표

- 가. 독서와 언어의 본질을 사회문화적 소통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해한다.
- 나. 국어 현상을 탐구하고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며 비판적·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른다.
- 다. 다양한 관점의 글을 비판적으로 읽고 논리적으로 의미를 재구성하며 사회적 공동체의 독서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 라. 독서와 문법을 통하여 개인의 삶과 사회 현상을 성찰하며 국어 문화를 창의적으로 발전시키는 태도를 기른다.

북한어 이해 교육을 통해 길러내려는 교육적 인간상은 남북한 언어 차이에 대한 지식만을 암기하는 '지식인'이나 그러한 지식을 실용적 국면에 단순 활용할 줄 아는 '실용인'이라기보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언어적 주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자기 자신과 공동체의 언어 문제에 대한 고찰과 탐구를 바탕으로 스스로 자신의 언어 사용 방식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언어 문제를 점검 및 반성할 줄 아는 학습자로서, 미래 국어 문화의 발전 방향을 탐색할 줄 아는 학습자가 되어야 한다.¹⁰⁾

북한어 이해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언어문화에 대한 인식이 필연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북한어를 배워야 하는 필요성이 통일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그것이다. 북한어 이해 교육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당위적으로 생각한다. 민족의 통일은 정치나 국토의 통일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신과 정서상으로 서로 이질감 없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을 갖는 문화적인 통일에 기대어 이루어지는 면이 많다. 한 민족의 문화는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문화의 총량에는 언어가 중추가 되는 주지의 사실이다. 남한과 북한이 진정 하나로 통일을 이루는 과정

10) 이러한 목표 설정의 근거는 교육과학기술부(2008)에서 해설한 2007개정 고등학교 국어과 '문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다.

에서 언어가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은 매우 크고(홍종선 2009: 36-37), 이 점이 목표 설정에 뚜렷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다. 현재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인식이 당연한 것으로 전제되어 있다. 제재와 활동의 구체적인 문장을 보면 알 수 있다.

- (4) ㄱ. 남북한 언어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하다.(제재, 중학교 <국어>)
- 나. 언어의 통일을 통해 민주적인 결속을 다져야 하고, 찬란한 민족 문화를 꽃피워야 한다.(제재, 중학교 <국어>)
- (5) ㄱ. 국어 규범과 관련하여 남북한 언어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모둠에서 토의해 보자.(학습활동, 중학교 <국어>)
- 나. 남북한 언어 차이 때문에 발생할 문제점을 생각해 보고, 이를 해소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자.(학습활동, 중학교 <국어>)

남한어와 북한어의 이질화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왜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빠진 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는 기술 태도는 막연하지만 당위성을 지닌 통일에 대한 의식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태도는 학생들로 하여금 언어의 이질화 극복이 통일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은 기성세대와는 차이가 있다. “청소년 통일의식조사”(통일교육협의회 2011)에 의하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66.9%(매우 16.8%, 대체로 50.1%)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전쟁 위협 등 불안감에서 벗어남’(25.5%), ‘우리나라의 국력이 더 강해짐’(24.3%), ‘역사적으로 한민족임’(21%),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19.3%), ‘분단에 따른 비용 절감’(12.2%) 순으로 응답하였다. 역사적으로 한민족이기 때문에 또는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줄어든 반면에 전쟁위협 등 불안감 해소와 통일 한국의 국력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의 통일 문제를 민족적 유대나 동포애와 같은 감성적 시각보다는 이성적이고 합목적적인, 나아가 실리적인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변중현 2012: 170). 이러한 학생들의 인식을 볼 때 북한어 교육의 목표에 통일의 당위성·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한다.

또한 북한어 이해 교육의 목표에는 북한어 및 북한어 사용자에 대한 태도가 분명히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 이탈주민들이 겪은 어려움의 원인 중 높은 응답을 기록한 것은 ‘외래어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41.4%)’와 ‘북한 사투리에 대한 남한 사회의 편견(23.0%)’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는, 표면적인 언어의 차이가 아닌 언어 사용자에 대한 태도가 중요함을 의미한다.¹¹⁾ 북한의 언어적 특성과 언어 문화적 특성에 대한 인지적 영역 이외에 반드시 태도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즉 언어의 통일 과정, 혹은 통일 이후 발생하는 여러 갈등을 예측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 능력을 지닌 학습자를 길러야 함을 말한다. 이는 국어과가 지닌 가치관 교과로서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으로 북한어 이해 교육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점이다.¹²⁾

11) ㈜라임글로브,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연구 용역 최종 보고서, 통일부 2013.

12) 최미숙 외(2012: 22-23)에서는 국어과 교육의 성격은 다음과 설명하였다. 첫째, 국어과는 소통 교과이다. 기본 소양 교육의 일환인 개인적 소통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동시에,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문화의 창조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소통 능력 향상도 목표로 하는 교과이다. 둘째, 국어과는 사고 교과이다. 지식을 구성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언어를 더욱 정교하게 하도록 하며, 인지적 사고 과정을 더욱 정교하게 하며, 개인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교과이다. 셋째, 국어과는 가치관 교과이다. 언어가 담아내는 심미적, 문화적, 윤리적, 사회적, 정치적 가치를 다각도로 경험하고, 인간 세계의 보편적이고 시의적인 가치 갈등 양상에 대한 인식과 판단력을 기르기 위한 교과이다.

2. 북한어 이해 교육의 내용

2011개정 교육과정에 의하면 북한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성취 기준이 중학교 <국어>에서는 어문규범, 고등학교 <국어 Ⅱ>는 국어의 변천을 다루며 제시되고 있고,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에서만 남북한 언어의 차이점 이해와 동질성 회복 방안 탐구라는 내용의 성취 기준이 단독으로 제시되고 있다.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북한어 이해 교육의 주된 내용은 남북한 언어의 차이 이해와 동질성 회복 방안 탐구이다.

이러한 성취 기준의 내용이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해보면 현재 북한어 이해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국어 교과서의 제재, 학습 활동, 단원의 마무리 등에서 나온 북한어 이해 내용을 크게 이질성에 대한 것과 동질성에 대한 것으로 구분하고, 이질성은 다시 '표기/규범, 어휘, 문장, 담화, 원인, 문제점, 해결방안'으로 세분화하여 정리하면 <표 5>와 같다.¹³⁾

<표 5> 교과서에 실린 북한어 이해 교육의 세부 내용

구분	교과서	이질성							동질성
		표기/규범	어휘	문장	담화	원인	문제점	해결방안	
국어	A-4	3	2					2	
	B-3	1					1	1	
	C-4	1	2			2		2	
	D-4	1						1	

13) <표 5>에 제시된 수치는 해당 교과서의 제재, 학습활동, 단원의 마무리 등에서 출현한 세부 내용의 수이다. 제재에 규범의 차이, 어휘의 차이, 이질성의 문제 등의 내용이 나왔다면 각각 1회 출현한 것으로 계산하였다. 발음과 외래어표기법은 '표기/규범'에 포함하였다.

	E-4	5	3			2		3	
	F-4	1	1					1	
	G-3	2	2					2	
	H-3	3					1	1	
	I-4	1	1			1	1	1	
	J-5		1		1				
	K-3	3				1			1
	L-4	1	2			2	1	1	
	M-4	2						1	
	N-4	1	1			1		1	1
	국어(소계)	25	15	0	1	9	4	17	2
국어 II	A	1	1	1		1		1	
	B	1	2					2	
	C		1				1	2	
	D	1	4			2		1	2
	E	1	1			1		1	
	F	1							
	G	1	2					1	
	H	1	1					1	
	I	1	3					2	
	J		1					1	
	K		1			1	1	1	
	국어II(소계)	8	17	1	0	5	2	13	2
독서와 문법	A	4	5	1	2	2	1	2	2
	B	3	4	1	1	4		2	1
	C	3	3	2	1	1	1	3	3
	D	5	3					1	7
	E	6	3	2		2		2	2
	F	2	2	1	1			2	2
	독서와문법(소계)	23	20	7	5	9	2	12	17
	총합	56	52	8	6	23	8	42	21

〈표 5〉를 보면, 우선 남북한 언어의 동질성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경우 보다는 이질성에 대한 내용의 출현 빈도가 두 배 이상 높았으며, ‘표기/규범’과 ‘어휘’가 다른 세부 내용에 비해 높은 빈도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해결 방안도 거의 대부분의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었다.¹⁴⁾ 위의 결과는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과도 관련된 것으로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에서만 문장, 담화 차원의 이질성에 대한 설명이 제시된 것은 “분단 상황에서 남북한 언어가 음운, 단어, 문장, 담화의 측면에서 어떤 변화와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본다”는 성취 기준 해설에 따른 것이다.¹⁵⁾

한편, 남북한 언어는 동질성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글에서 이미 ‘통역이 필요하지 않고, 지역 방언 수준의 차이만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¹⁶⁾ 그 근거로 남북한 언어는 음운 체계의 심각한 변화도 없고, 문법의 차이도 없으며, 어휘 체계의 차이도 크지 않다는 점을 든다. 그리고 어휘의 차이도 방언의 차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문화 교류만 있으면 그 차이가 쉽게 해소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든다(이인제 2005: 180).

그러나 어문규범 중심의 현재 교과서에서는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에서만 남북 언어의 동질성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남북한 언어의 이질성과 동질성이 각각의 개념 규정에 대한 논의 없이 표준어와 문화어의

14) 그러나 교과서에 제시된 남북한 언어 동질성 회복 방안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재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은 피상적이고 학습활동은 학생들이 해결하기에는 지나치게 열린 구조를 지니고 있어 문제이다. 이러한 학습 활동들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체감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높은 난이도로 느껴진다.

15) 북한어 이해 교육 내용이 이처럼 어문규범 중심인 이유는 성취 기준에 따른 것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어학에서의 북한어 연구가 언어 정책, 어문규범, 연구사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북한어 자료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우 피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홍윤표 2014).

16) 교과서에 실린 ‘하나 된 언어, 하나 된 민족’(심재기), ‘남북 언어의 이질화와 그 극복 방안’(남기심) 등의 글은 남북 언어 차이가 의사소통에 지장이 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어문규범 차원에서 이질성만이 강조되고 있다. ‘다름의 인정’과 아직도 ‘같은 확인’을 밝혀 이질성은 다양성으로 포용하고, 동질성은 민족정체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¹⁷⁾

(6)과 (7)은 남북한 언어의 동질성에 대해 다룬 교과서의 일부이다.

- (6) 재미있는 것은 남한의 국어 순화 운동과 북한의 말 다듬기 운동이 각각 독자적으로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신기하게도 비슷하게 되었다.

남북이 똑같은 형태로 바꾸고 다듬은 말

감미(甘味)	단맛	게시판(揭示板)	알림판
기수(奇數)	홀수	내피(內皮)	속껍질
괄호(括弧)	묶음표	상록수(常綠樹)	늘푸른나무

(제재, 고등학교 <국어II>)

- (7) 문: 분단 이후 남북 말이 서로 얼마나 달라졌나?

답: 나는 남북의 언어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차이가 있지만 경상도, 전라도 사이의 방언적 차이에 불과하다. 분단 이후 남과 북이 각각 언어 순화 작업을 펼쳤는데, 그 결과를 보면 전체 어휘와 어문규범 등에서 80퍼센트 정도 똑같다. 서로 상의 없이 각각의 방식으로 진행했는데도 이렇게 된 것은 민족이 함께 써 온 언어의 뿌리가 깊고 실제 언어생활상의 차이도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분단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어휘, 새로 들어온 외래어, 같은 어휘를 다른 뜻으로 쓰는 경우 등이 있지만, 이것이 사전 편찬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한겨레신문 2005. 2. 24. (학습활동,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위의 내용은 고등학교 선택과목에만 들어갈 내용이 아니라 북한어에 대한 학습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중학교 <국어>에서부터 포함되어야 한다. 아울러 남한어와 이질성을 보이는 북한어는 (7)에 밑줄 친 부분과 같이 명확하게 구분하여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담화 층위에서의 이질성에 대한 세부 내용도 고등학교 <독서와

17) 한양명(2007) 참조.

문법)에서만 다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북한어 이해 교육에서 담화 층위는 통일 이후 실제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층위이다. 현재 통일 이후의 언어생활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지점이 남한에서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생활이다. 여러 연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겪는 언어적 어려움이 보고된 바 있다.¹⁸⁾ 이들은 외래어와 한자어에 대한 어려움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담화 상황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나 남한 사회에서 고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인사 표현, 요청 표현, 거절 표현 등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언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문금현 2007:142). 남한어와 북한어의 차이는 규범 외에 담화 층위에서도 존재하는 것이다. 남한어와 북한어의 화법 차이는 (8)의 북한이탈주민의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8) 남한 사람들이 “나중에 연락할게,” “생각해 볼게” 해 놓고 연락도 없고 그러면 아니 말 갖고 장난 치냐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물어보면 안 된다고 내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기분 나쁘고 배신감 느끼죠. 이젠 좀 습관화되어 괜찮아요. (문00, 30세, 여) (양수경·권순희 2007에서 재인용)

남한과 북한은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상호간의 교류 없는 공간적 단절, 서로 다른 정치·사회문화적 체제 속에서 지내왔다. 서구의 영향을 받은 남한의 화법관, 남녀 화법과 달리, 북한이탈주민들에게서 간접적으로 확인한 북한의 화법은 신중한 말 태도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화법관, 남녀의 사회적 지위를 반영하는 전통적 남녀 화법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여기에 앞서 언급한 간접화법, 인사 표현 등 화법에서의 차이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¹⁹⁾ 더욱이 의사소통에서는 발음·문법적인

18) 문금현(2005, 2006, 2009), 양수경·권순희(2007) 참조.

19) 양수경·권순희(2007: 469-471)에 의하면 새터민들은 확실하게 의사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정직하고 인간관계에서 좋다고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자신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숨김없이 이야기하는 반면 남한 사

차이로 인한 문제보다 화법의 차이로 인한 문제가 훨씬 중대하다.²⁰⁾ 서로 간의 의사소통과 사회적인 활동에 있어서 필요 없는 오해와 갈등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화법 차이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양수경·권순희 2007: 463). 이들 중 일부가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에 포함되어 있지만 중학교 〈국어〉와 고등학교 〈국어Ⅱ〉에서도 다루어져야 할 내용이다.

겨레말큰사전 편찬과 관련해 어문규범의 통일을 위한 논의와 함께 최근에는 남북한 표준화법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고 있다. 임철성(2009: 38)에서는 ‘인사말, 호칭과 지칭 등의 차이는 내용으로 보자면 크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면서도 실은 만남 자체에 대한 내적 심리적 기제를 형성하여 내용을 크게 좌우할 수 있는 요소들이라는 점에서 화법의 표준화 사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주체사상에 의해 규범화된 언어는 호칭어와 지칭어에서도 적용되어 실제 북한의 호칭어와 지칭어의 실태는 남한과는 차이가 있다.

(9) 북한에서 호칭과 지칭의 실태²¹⁾

첫째, 봉건 잔재 사상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 호칭·지칭을 사용치 않도록

람들은 앞에서는 듣기 좋게 말하는데 뒤돌아서면 말이 달라진다고 보고하였다. 완곡한 거절이나 의례적인 인사말 같은 간접 화법을 사용하는 남한 사람들에게 대해 “때로 이중적이다. 사기꾼이다” 같은 판단을 내리기도 한다. 또한, 새터민의 직선적인 표현은 남한에서는 세련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며 종종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빚어내기도 한다. 이러한 화법 차이는 남한 사람들에게 더욱 이해를 요구하는 부분이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사회생활 상황에서 북한 사람들이 부드럽게 요청하고 부탁하기보다는 직접 명령하는 투의 말을 쓴다면, 북한 사람이 무례하고 거칠다는 생각을 남한 사람들은 하기 쉽다. 그러나 그런 특성이 북한 화법 문화임을 인식한다면 서로 간의 오해로 인한 갈등을 다소 피할 수 있을 것이다.

20) 한국어교육에서도 대부분의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문법적인 오류보다 화용적인 오류에 덜 관대하고, 화용적인 오류는 자칫 개인에 대한 오해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이혜영 2002: 52).

21) (9)의 내용은 임철성(2009)의 내용 중 일부를 요약한 것이다.

- 하고 있다.(숙부, 숙모, 질녀, 춘부장, 할멈, 아가씨 등)
- 둘째, 주체사상은 가족관계 대신 집단적 관계를 조장하고, 주체사상에 입각한 언어 규범은 집단 내 호칭에서 가족 관계의 호칭을 사용하도록 하여 집단을 가족 관계의 확장으로 인식하게 하고 있다.(반장아바이, 큰아버지(동네어른에게), 세대주(남편에게) 등)
- 셋째, 사회적 호칭은 일정한 체계를 유지한다.(사회적 직급이나 지위에 '어른, 동무'를 붙여 이름말로 씀, 남한의 '-님' 낱은 사회에서 쓰이는 표현)
- 넷째,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칭이 있다.(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호칭어와 지칭어는 상대와 나의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화법 요소로 일상 언어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문어를 중심으로 하는 어문규범의 통일과 함께 실제 의사소통 장면에서 만나 대화를 주고받는 구어 중심의 통일에 대해서도 관심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남북한 어휘 차이에 대한 내용은 북한의 어휘에 대해 흥미성 위주로 호기심을 풀어주기 위하여 소개하는 정도로 그쳐서는 곤란하다. 북한어에 대해 단편적이고 단순한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 북한의 언어와 문화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의 깊이를 더하여 통일 과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통일이 되어 남쪽과 북쪽의 사람들이 만났을 때 비교적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차이는 언어 표현을 조사·연구하여 이러한 말에 대한 교육을 우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홍중선 2009: 46). 즉 통일 후 국어의 발전적 방향 모색이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남한어에 대한 반성적 태도도 포함되어야 한다. 통일의 형태가 무엇이든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이 만나 의사소통하는 상황은 발생하며, 이때 어느 한쪽으로서의 일방적인 언어로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 북한어만이 개조의 대상이 아니라 남한어 또한 반성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남한의 외래어 사용이다. 고유어 중심의 북한어를 촌스럽다고 치부해 버리기보다는 남한의 지나친 외래어 사용에 대해 되돌아보는 내용과 태도가 필요하다.

국어과의 북한어 이해 대한 교육은 지식 습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언어생활에 적용하고 올바른 국어 가치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국어 사용의 관점에서 북한어와 비교하여 충분히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이다.

IV. 제안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통일을 대비해 현재 남한 국어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어 이해 교육에 대해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았다. 북한어에 대한 내용이 중학교 〈국어〉, 고등학교 선택과목 〈국어 Ⅱ〉와 〈독서와 문법〉에서 다루어졌으며, 교과서 구성에서도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을 제외한 중학교 〈국어〉와 고등학교 〈국어 Ⅱ〉는 북한어 관련 내용이 본문에 배치되는 비율이 분석대상 교과서의 절반에 그치고 있어 북한어 이해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북한어 이해 교육에 대한 분명한 교육 목표가 설정되지 않았으며, 교육 내용에서도 어문규범과 어휘 차이에 집중되어 있었다.

향후 국어교육에서는 남북한의 언어 차이에 대한 지식 중심의 교육보다는 통일에 대한 인식과 나아가 통일 후 국어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한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북한어 이해 교육의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특히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기성세대와는 다른 인식을 하고 있는 세대이기에 단순히 언어에 초점을 둔 교육보다는 가치관, 태도 등을 강조한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 내용도 통일 후 의사소통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새터민 연구를 통해 밝혀진 화법에서의 차이가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북한어 이해 교육을 위해 다음의 내용을 제안한다. 먼저 통일 교육은 통합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앞서 국어과에서의 북한어 이해 교육은 중학교에서 시작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초등학교에서의 북한어 이해 교육은 저학년에서 실시되는데 국어과가 아닌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의 통합교과인 주제 중심 교과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초등학교 1-2학년군의 통합교과에서는 대주제를 중심으로 통합하여 동일한 대주제를 상이한 관점에서 구현한 활동 주제를 중심으로 각 교과별 특성을 반영하여 구성하였다.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모습에 충실한 내용과 방식으로 학생이 교과 지식을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형태로 통합·조직한 것이다.²²⁾ 이 가운데 대주제 ‘우리나라’에는 소주제 ‘남북통일’이 있고, 각 교과별 활동 주제를 <표 6>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6> 초등학교 1-2학년군의 주제 체계²³⁾

대주제	소주제	교과별 활동 주제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상징 -전통문화 -이웃나라 -남북통일	·우리나라의 상징 알기 ·전통문화 소중히 여기기 ·외국인을 대하는 바른 태도 갖기 ·통일을 위한 노력 알아보기	·우리나라 소개하기 ·전통문화 살펴보기 ·이웃나라 조사·발표하기 ·남북한에 대해 알아보기	·우리나라 상징 표현하기 ·전통문화 체험하기 ·문화 알리미 놀이하기 ·통일 전시회 열기

2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초등학교 교육과정. 26쪽

23) 각 교과별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교과	성취 기준	성취 기준 해설
바른 생활	통일을 위한 노력 알아보기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알아본다.
슬기로운 생활	남북한에 대해 알아보기	남북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면서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즐거운 생활	통일 전시회 열기	우리 주변에서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나 활동을 소재로 교실에서 가능한 전람회를 연다.

교과서로 구현된 성취 기준은 북한의 자연환경, 생활모습, 전통문화, 학생들의 생활모습, 놀이 등을 소개하며 남한과 북한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찾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여기에는 북한어도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언어를 따로 지식으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여지도록 만들어졌다. 더불어 통일된 우리나라 상상해 보기,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등 북한에 대한 학습의 목표를 통일을 위한 노력과 연계하여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학습한 북한어에 대한 내용은 이후 학교급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남북통일이 우리 민족의 절대적 과제임에도 시간이 흐를수록 학생들에게는 와 닿지 않는 내용으로 인식된다. 독립된 수업 시간을 편성하되 통합 교과 성격으로 개발·운영하여 지금의 피상적인 통일교육을 벗어나야 한다.

또한 국어과 내에서는 북한어 이해 교육이 초등학교 저학년에서의 통일 교육과 연계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고, 독립된 성취 기준을 마련하여 북한어 이해 교육의 목표에 부합한 내용으로 조직화되어야 한다. 북한어 이해 내용의 핵심이 선택과목에 집중되어 있는 지금의 체제는 실질적으로 북한어 이해 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북한어를 포함한 통일 교육은 선택 과목이 아닌 공통 과목에서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계 전반에 통일을 준비하는 교육 분위기가 확산되어야 한다. ‘북한 동포에게 편지쓰기, 북한 소식 신문 만들기, 북한말 변화에 대한 글짓기 대회, 통일 기반 추진 사업명 아이디어 대회 등 북한어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통일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능동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도록 해야 한다.²⁴⁾

24) 김혜정(2013: 158)에서는 북한어 이해 교육을 위해 “교육과정에 북한 관련 성취 기준 명기해야 한다, 교육계 전반에 동질성 회복을 위한 분위기를 확산시켜야 한다,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막연하고 진부한 것으로 들리는 통일을 언제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통일'이 결정된 순간부터는 지금까지와 매우 다른 환경에 돌입하게 된다. 정치, 경제, 사회 등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위해 합의한 부분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삶의 소통 수단인 '언어'와 '언어'로 수행되는 교육은 매우 큰 변화를 겪을 것이다. 통일 이후를 준비하는 국어교육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제어: 북한어 이해 교육(Education for understanding of North Korean language), 통일(Reunification), 국어교육(Korean Language education), 어문규범(Korean Language rules), 교육과정(Curriculum), 교과서(Textbooks)

참고문헌

- 교육부(2013), 『초등학교 우리나라』, (주)지학사.
 김중철 외(2013), 『중학교 국어4』, 천재교육.
 김태철 외(2013), 『중학교 국어4』, 비상교육.
 남미영 외(2013), 『중학교 국어4』, (주)교학사.
 노미숙 외(2013), 『중학교 국어4』, 천재교육.
 민현식 외(2013), 『중학교 국어3』, 좋은책신사고.
 박영목 외(2013), 『중학교 국어4』, 천재교육.
 방민호 외(2013), 『중학교 국어4』, (주)지학사.
 방민호 외(2013), 『중학교 국어5』, (주)지학사.
 우한용 외(2013), 『중학교 국어3』, 좋은책신사고.
 윤여탁 외(2013), 『중학교 국어4』, (주)미래엔.
 이관규 외(2013), 『중학교 국어4』, 비상교과서.
 이도영 외(2013), 『중학교 국어3』, 창비.

- 이삼형 외(2013), 『중학교 국어3』, 두산동아.
 한철우 외(2013), 『중학교 국어4』, 비상교육.
 김종철 외(2014), 『고등학교 국어Ⅱ』, 천재교육.
 김중신 외(2014), 『고등학교 국어Ⅱ』, (주)교학사.
 박영목 외(2014), 『고등학교 국어Ⅱ』, 천재교육.
 신동훈 외(2014), 『고등학교 국어Ⅱ』, 두산동아.
 우한용 외(2014), 『고등학교 국어Ⅱ』, 비상교육.
 윤여탁 외(2014), 『고등학교 국어Ⅱ』, (주)미래엔.
 이삼형 외(2014), 『고등학교 국어Ⅱ』, (주)지학사.
 조현설 외(2014), 『고등학교 국어Ⅱ』, 해냄.
 박영목 외 (2014),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천재교육.
 윤여탁 외(2014),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주)미래엔.
 이관규 외(2014),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비상교육.
 이도영 외(2014),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창비.
 이삼형 외(2014),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주)지학사.
 한철우 외(2014),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주)교학사.
- 강보선(2004), 「국어지식 교육에서의 북한어 이해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교육과학기술부(2008),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국어』.
 김중신(2014), 「통일시대 어문 교육의 방향」, 『국어국문학』 168, 국어국문학회, 93-121쪽.
 김혜정(2013), 「남북한 언어 이질화와 그 극복을 위한 교육 방안-북한의 광고와 뉴스 담화의 화용적 분석을 토대로-」, 『한말연구』 33, 한말연구학회, 137-163쪽.
 남기심(2002), 「남북 언어의 이질화와 그 극복 방안」, 『남북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제1차 국제 학술대회 논문집』, 국립국어원.
 문금현 외(2005), 『새터민의 언어 적응을 위한 실태 조사 연구』, 국립국어원.
 문금현 외(2006), 『새터민 언어 실태 조사 연구』, 국립국어원.
 문금현(2007), 「새터민의 어휘 및 화용 표현 교육 방안」, 『새국어교육』 76, 한국국어교육학회, 141-172쪽

- 변종현(2012), 「청소년의 통일 의식과 학교 통일교육의 진화」, 『윤리교육연구』 29, 한국윤리교육학회, 165-186쪽.
- 서혁(1997), 「통일 국어교육의 방향과 교수학습방법」, 『함께여는 국어교육』 1997 여름호.
- 양수경·권순희(2007), 「새터민 면담을 통한 남북한 화법 차이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28, 국어교육학회, 459-483쪽.
- 이인제(1996), 「북한의 국어과 교육에 관한 연구」, 교원대 박사학위논문.
- 이인제(2005), 「통일 한국의 국어 교육과 교육과정 통합의 방향」, 『국어교육』 117, 한국어교육학회, 177-232쪽.
- 이해영(2002), 「비교문화적 화용론에 기초한 한국어의 화용 교육」, 『이중언어학』 21호, 이중언어학회, 46-70쪽.
- 임철성(1996), 「북한의 화법교육연구」, 『새국어교육』 53, 한국국어교육학회, 109-142쪽.
- 임철성(2009), 「남북화법 표준화를 위한 한 모색」, 『화법연구』 15, 한국화법학회, 37-64쪽.
- (주)라임글로브(2013),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연구 용역 최종 보고서』, 통일부.
- 최미숙·원진숙·정혜승·김봉순·이경화·전은주·정현선·주세형(2012), 『국어교육의 이해』, 사회평론.
- 최현섭(1999), 『남북한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 연구』, 역락.
- 통일부(2013), 「북한이해 2013 참조 및 유관기관 정보 종합」, 『북한정보 포털(교육·문화·교육 내용)』.
- 한성우(2014), 「한민족 통일 시대를 위한 ‘민족어’의 성찰과 모색」, 『한국어문학회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113-139쪽.
- 한양명(2002), 「남북 민속학연구-어떻게 할 것인가」, 『민속학과 현실문제』, 월암연구실.
- 홍윤표(2014), 「통일 시대를 위한 북한어 연구 방향」, 『한국어문학회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7-44쪽.
- 홍종선(2009), 「중등학교 국어 과목에서의 북한어 교육」, 『한어문교육』 21,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35-59쪽.

A Critical Review on Education for Understanding of North Korean Language in Korean Education

Kim, Jung-sun

[Abstract]

This study reviews curriculums and textbooks used in education for understanding of North Korean language currently implemented in language education of Republic of Korea, or simply South Korea, in preparation of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Presently, in the education for understanding of North Korean language, the education for reunification being conducted based on integrated curriculum of low grades of elementary schools is not organically connected with later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Contents regarding North Korean language are dealt with in 'Korean Language' in middle school and elective subjects of high school, 'Korean Language II' and 'Reading and Grammar' and, in terms of composition of textbooks, the rate in which contents related to North Korean language are included in the text of 'Korean Language' in middle school and 'Korean Language II' in high school stays only about half of the target textbooks analyzed, showing that the importance of education for understanding of North Korean language is not much emphasized. In addition, clear education goal was not established for education for understanding of North Korean language and, in education contents, the focus was mainly on language rules and the difference of vocabularies.

Based on the review content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goals of education

for understanding of North Korean language in such as way that proper perception on reunification and constructive attitudes can be cultivated toward the direction of desirable develop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fter reunification rather than knowledge-focused education on the difference of language of the two Koreas. Especially, as young generations have different ideas and perceptions on the necessity of reunification, emphasis should be placed more on values and attitude than on simple language education. Besides, education contents should include what will be practically necessary in communication context after the reunification, prime example for which would be difference of speech revealed by the study on 'New villagers' or North Korean defectors. Lastly, learning activities also should be specifically organized so that students can understand reunification naturally.

김정선

소속: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이 논문은 2015년 5월 10일 투고 완료되어
2015년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5년 6월 19일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되었음